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53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30:9-25	인 도 자
설 교	사람에게 베푼 긍휼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410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안수빈 이상준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오후 7시 (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2월 16일 제72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순식간에 다윗의 공동체로 하여금 최악이 되게 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통해 오히려 잃어버렸던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말렉 족속의 뒤를 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6백 명 전부가 아말렉을 쫓아 나섰는데 너무 강행군을 하니까 브솔 시내 앞에서 2백 명은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나머지 400명의 군사는 200명을 남겨 두고 시내를 건너서 황량한 사막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인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그 때 그들은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시가 급한 마음으로 지친 군대 200명을 뒤에 두고 강행군을 하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과 병들어 쓰러진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든 소년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소한 일 같이 보이는 이것이 아말렉과 다윗 군대의 미래를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쁜 그들의 길을 멈추고 돌본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애굽 소년에게 먹을 것 주고 돌보아 주어 기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린 후에 그는 다윗에게 아말렉인들의 거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는 다윗의 부대를 그리고 인도하였습니다.

결국 그 버림받은 애굽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고 다윗의 두 아내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탈취했습니다. 승패의 갈림길! 이 장면에서 버림받은 애굽 사람 하나가 바로 승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병든 이집트 소년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에게서 빼앗긴 처자와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던 이들이 브솔 시내에 남았던 200명의 동료들과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는 말에 반발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되었지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은 단 한 개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전쟁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악한 자와 비류'라 하였습니다.(22절) 삼상30: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왜 성경이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 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 다윗에게 모여 든 사람들이었습니다.(삼상22:2) 그런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말렉 추격 사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들 모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했고 한 이집트인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땅한 분배를 요구하는 그들을 성경이 악한 자와 비류라 한 것은 그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랍도록 관대하고 긍휼의 은혜로 대하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서로를 놀랍도록 관대하고 긍휼함으로 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엡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버림받은 사람 하나! 그 사람은 나의 축복거리요,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만난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우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거리입니다. 그 사람은 놓치면 축복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구제와 와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다음주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성탄감사예배를 드리며 이웃들에게 나누어드릴 초대장을 준비하였습니다.**
3. **올 해 성탄감사예배는 성극을 중심으로 드립니다.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준비한 성극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4. **박선영 집사가 올림피아로 이사하였습니다. (2708B 12th Ave NE Olympia WA 98506))**
5. **12월 30일 주일예배 후 2007년 당회로 모입니다.**
6. **12월 31일 저녁 8시 30분부터 송년친교모임이 있고 10시 30분에 송구영신예배로 드립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50.00	
감사헌금:	$201.00	
주일헌금:	$54.00	
특별헌금:	$0.00	**합 계: $405.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